

## 심층면접 방법의 실제: 청주 지역사회 권력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사례를 바탕으로

강희경\*

권력자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양적인 방법(표본조사)과 질적인 방법(심층면접)이 있지만, 표본수가 원천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권력자(특히 지역사회 권력자)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접을 주로 사용한다. 권력자들을 심층면접할 때 부딪치는 첫번째 문제는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관이 대학이라는 것이 권력자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면접 대상자로 결정된 권력자들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면접 자료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의 저서, 연설, 공문서 등 2차 자료도 충분히 숙지한다. 그리고 면접자는 면접 상황(면접 상황, 호의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심층면접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질문 문항에서 체계적인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주제를 잘 정해야 한다. 청주 연구에서도 버스 터미널 이전처럼 청주 지역사회의 권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주제를 정했는데, 이것에 관여한 응답자가 거의 없어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술적 문제로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녹음 해독을 다시 제시하여 검토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하였다.

### 1. 권리자 연구의 일반적 문제

권력자<sup>1)</sup> 연구는 ‘엘리트주의의 황금 시대’라 불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공 분야는 사회계층이다. 주요 저서로 “지역사회 권리자의 권리 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학》 제32집 겨울호, pp. 757-786, “공간, 정보 그리고 지역 정체성: 충북의 경우”, 지역사회학회 편, 《지역사회학》 제2호, 《정보화와 지역 발전》, 한울, pp. 223-247 등이 있다(E-mail: kkhee255@trut.chungbuk.ac.kr).

고전적 엘리트론이라 불리는 모스카(Mosca)와 파레토(Pareto)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헌터(Hunter)와 밀즈(Mills)의 엘리트론과 다알(Dahl)과 폴스비(Polsby)의 다원론간의 논쟁적 대립이 하나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권력자 연구는 1930년대에 등장한 표본조사와 여론조사의 영향으로 대중 연구에 비해 학문적 관심을 적게 받았다. 권력자 연구가 다시 부활한 것은 '신엘리트론'이 등장한 1970년대 중반이었다. 그러나 신엘리트론은 맑스주의자와 서구 사상의 영향으로 고전 엘리트론과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 신엘리트론자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여론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권력자들의 '독자성'이 제약받는다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권력자 연구는 이와 같이 현실에 접근하고 경험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Moyser and Wagstaffe, 1987: 5-6). 이런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가 권력자들에 관한 연구 방법론의 심층적 개발이다.

권력자 연구가 갖는 일반적 한계는 이론과 경험적 현상간의 상호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숙명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권력 개념이 경험적 조사 연구에서는 명쾌하게 구별되지 않으며,<sup>2)</sup> 경험적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기가 현

- 1) 여기서는 엘리트라는 용어보다 권력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데 비하여(예: 인기있는 연예인과 운동 선수), 권력자는 국가 관할하의 국민이나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 2) 권력 개념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 구분해야 될 개념들이 많아서 용어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권력 개념은 영향력, 통제력, 강제력, 강요, 권위, 위협, 폭력 등과 서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권력이 개인의 속성인지 또는 조직의 속성인지, 아니면 관계적 속성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베버(Weber)는 권력을 개인의 속성으로 본 반면에 아렌트(Arendt), 파슨스(Parsons), 폴랑자(Poulantzas) 등은 권력을 인간 집단 또는 조직의 속성으로 보고 있다. 바크라츠와 바라츠(Bachrach and Baratz)는 권력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Arendt, 1986; Parsons, 1986; Poulantzas, 1986; Bachrach and Baratz, 1962). 셋째, 권력이 있다는 평판과 실제 권력의 일치 여부도 논란 거리이다. 엘리트론에서는 권력 엘리트가 부, 사회적 지위, 명성 등을 갖고 있을 때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다원론에서는 권력이 있다는 평판과 실제 권력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Wolfinger, 1960). 이 논의는 권력이란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공개적 권력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잠재적 또는 묵시적 권력도 포함하는지의 쟁점으로 이어진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특정 쟁점을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비결정 영역' (area of nondecision-making) (Bachrach and Baratz,

실적으로 쉽지 않다.

둘째 문제는 권력과 권력구조 이론이 권력자 선정 방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Freeman et al., 1974). 특정 권력자 선정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와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경험적 현상과 관계없이 특정 권력구조 이론이 도출된다.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공공 조직의 고위직을 점유하는 사람들을 권력자로 보는 지위적 방법 (positional approach)과 판정자의 의견에 의존하여 권력자를 선정하는 명망적 방법 (reputational approach)을 사용하면, 단일 권력구조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방법은 권력자를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지위적 방법은 권력자 선정을 연구자 자신이 하는 데 비하여 명망적 방법은 판정자들이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3)</sup> 의사결정법 (decisional approach)은 지역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쟁점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동을 연구하여 지역의 실제적인 권력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것 또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의 다원적인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Walton, 1971).

셋째로, 경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권력자를 연구할 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연구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 이외의 지역에 살지만, 연구 대상 지역에 기업체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들이 있다. 또한 활동의 무대가 국가 기관이지만, 권력을 발생시키는 기체가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국회의원(지역구)과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런 경우 이들을 지역사회 권력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인보다는 정치인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권력자로 보아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것을 세분하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토착 권력과 비토착 권력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sup>4)</sup>

---

1963: 632)과 특정 쟁점을 잠재 상태로 유지하는 '체계의 편견' (bias of the system) (Lukes, 1974)이라는 쟁점과 연결된다.

3) 한 연구에 의하면, 명망적 방법과 의사결정법의 일치도는 33%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지위적 방법과 명망적 방법의 일치도는 74%에 이르고 있다(Freeman et al., 1974: 246).

4) 국가나 중앙당, 기업체 본사나 사회단체 본부 등 중앙 기관에서 임명받은 직위에서 발원하는 권력이 '중앙 권력'이고, 지방 소재 기관에서 임명되거나 선출된 지위와 지방에서의 개인적인 영향력으

## 2. 권력자 연구 방법론

앞 절에서 언급한 권력 연구의 이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권력자 연구의 방법론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Moyser and Wagstaffe, 1987). 누가 권력자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주요 논제가 아닌 경우에는 권력자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쉽다.

권력자를 연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서 자료(연설, 논문, 일기, 편지, 자서전, 전기, 국회의원의 투표 기록, 판사들의 판결문 등)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정치가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영역이 공식적 제도(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권력자들에 비해 이용 가능한 문서 자료가 많다. 이 자료들은 그 자체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자료들은 권력자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권력자와 지도자들은 문서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자기 비판보다는 자기 미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검토할 때는 저자의 의도와 배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Medhurst and Moyser, 1987). 권력자들이 자기를 미화하는 이유는 주위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상당하고, 지위 추락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서 자료가 갖고 있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들의 내용을 컴퓨터로 내용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용 분석은 권력자 연구에서 잘 활용되지는 않는다(Moyser and Wagstaffe, 1987: 20).

1960년대말부터 소시오메트릭 기법에 의하여 권력자들의 영향력 관계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위적 방법에 의해 설정된 권력자들에게 상호작용 대상자들을 거명하도록 하거나 국가적 쟁점을 같이 논의한 사람들, 그리고 응답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 사람들과 응답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접근한 사람들을 거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전된 것이 관계망 분

---

로부터 발원하는 권력이 '지방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자가 다른 권력자와의 관계에서 혈연, 인척, 지연, 학연 등 토착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정도(토착망 의존도)에 따라서 권력을 토착 권력과 비토착 권력으로 구분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권력자라 하더라도 타권력자들과 토착적 연결망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토착 권력자가 된다. 재야 권력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석이다. 최근 들어서 권력자들의 관계망을 분석함으로써 권력자들의 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내용 분석이나 관계망 분석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층면접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심층면접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도 구술사 방법과 참여관찰법이 있다. 심층면접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구술사 방법과 참여관찰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술사 방법은 응답자들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방법으로서 심층면접보다 면접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2시간에서 15시간) 절차가 더 복잡하다. 녹음 해독한 분량도 더불 스페이스로 40쪽에서 320쪽까지 상당한 분량이다.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에 앞서 1시간 정도의 사전 회합을 갖기도 한다(Raab, 1987: 119). 참여관찰법은 연구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에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참여관찰은 권력자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래포(rapport)를 쉽게 형성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응답자에 동화되어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Sinclair, 1987: 69).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면접자가 권력자와 같은 동질적인 집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전적인 의미에서 참여관찰자가 원천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3. 권력자 심층 면접

권력자로부터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 방법을 대별하면, 양적인 방법(표본조사)과 질적인 방법(심층면접)이 있다. 질문을 표본조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할지 심층면접에서 주로 이용하는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할지는 기본적으로 연구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권력자 유형에 따라서도 질문 방식이 달라진다. 표본수가 원천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권력자(특히 지역사회 권력자)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접이 주로 사용된다. 반면에 중앙 권력자들은 지역사회 권력자들처럼 심층면접을 사용하여 자료를 획득하기도 하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서는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구조화된 질문으로 자료를 생산하기도 한다(Hoffmann-Lange, 1987).<sup>5)</sup> 이 경우는 일반 조사와 같은 통계적 기법까지도 동원된다. 대체로 권력자 연구에서는 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

러나 국가 권력자들에 관해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연구 내용이 정치적 문제와 정치적 이념에 관한 지각(perception)에 관계되는 질문들은 강요된 선택지로 연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조사는 비록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광범위한 정보는 획득할 수 있다. 권력자 집단을 다양하게 잡고 각 집단에 속한 권력자수를 충분히 확보하면, 표본조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조화된 질문으로 유용한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권력자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질적인 방법으로서의 심층면접이다. 심층면접은 주로 비구조화된 질문 방식을 사용한다. 권력 연구의 핵심인 권력자의 생애 직업유형, 역할 행동, 의사결정 활동, 권력 행사의 차이,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이나 비구조화된 질문 방식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Hoffmann-Lange, 1987: 28; Pridham, 1987: 76). 심층면접은 면접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면접자가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응답자의 면접 내용과 비교하는데는 문제가 있다(Sinclair, 1987: 67). 그리고 권력자들을 심층면접함으로써 문서 자료들이 갖고 있는 비유연성이나 한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의 저변에 있는 권력자 개인의 태도와 의도, 권력자들간의 상호작용 등을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심층면접은 방법론적이고 분석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 특히 '대항 권력자'<sup>5)</sup>는 면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더라도 그 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기까지 한다(Moyser and Wagstaffe, 1987: 19).

#### 4. 권력자 심층면접에서의 유의 사항

심층면접이란 면접자와 피면접자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는 면접자와 응답자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면접을 우

- 
- 5) 1981년 독일에서 이루어진 권력자 연구가 한 사례이다. 이 연구는 모두 9개 부문의 중앙 권력자 3,164명을 선정하여 일반 조사와 같은 방법의 조사를 하였다. 물론 반구조화, 또는 비구조화된 질문도 사용하였다. 그래서 면접자가 무려 109명이나 되었다.
  - 6) 기존 체제에 대항하여 시민운동이나 빙민운동을 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우리 의 경우에는 재야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둘째는, 준 적대적 상호작용 관계로서, 면접자와 응답자의 의도가 부분적으로 같고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어떤 활동에 참여했음을 자발적으로 말해 주면서도 활동의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비해 면접자는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또는 면접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응답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이다. 이런 때 심층면접 기술이 요구된다.셋째는 면접자와 응답자가 서로 다른 공식을 갖고 있고 해석과 강조점을 달리 하여 서로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Czudnowski, 1987: 233).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권력자들을 심층면접할 때 유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먼저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음으로 1995년 청주 지역사회 권력자 연구에서 실제로 취한 방법을 기술하기로 한다. 중앙 권력자건 지역사회 권력자건 권력자의 심층면접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는 면접을 주선하는 중재자가 필요한가, 논쟁적인 질문을 회피해야 할 것인가, 면접 내용의 비밀을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장할 것인가 등이다. 이 이외에도 권력자 접근, 면접 약속, 녹음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 이를 심층면접에 앞서서 해야 할 일과 면접 과정, 그리고 면접 과정 전반에 걸쳐 고려해야 할 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 1) 외국 사례

### (1) 심층면접 준비

#### ① 권력자 접근

#### ⑦ 권력자 접근에 미치는 여러 요인

권력자들은 그들 세계에 진입해 오는 것을 대체로 통제한다. 권력자들을 면접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권력자들에 접근하는 것이 다 어렵지만, 영향력이 큰 권력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권력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접근하는 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의원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싱턴에 상주하여 의원의 계획이 바뀔 때마다 면접 계획을 바꾸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하원의원보다 더 바쁜 상원의원을 면접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끈질긴 자세를 가져야 한다(Sinclair, 1987: 63).

권력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접근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기존 사회의 틀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류 권력자 또는 전통적 권력자는 대학 주관의 연구 작업을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에 협조적이다. 따라서 접근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85).<sup>7)</sup> 그러나 국가기관의 대표자들과 기본적으로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항 권력자는 대학의 조사 연구에 냉소적이다. 이들은 공적 지원을 받는 연구는 기존 체제를 옹호할 뿐이라고 인식한다. 약자의 활동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 연구는 기본 지향이 잘못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들은 오로지 사회 통제를 쉽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자들의 자료수집 활동은 국가기관 특히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과 같은 것이라고 인식한다. 대항 권력자들은 그들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86-187). 그러나 모든 대항 권력자들이 연구에 부정적이지는 않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1).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국민문화도 권력자 접근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좌파 정당 출신 정치인들이 다른 정당 출신들보다 비교적 접근하기 쉽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정치인들과 대학 교수간의 교류가 정치 문화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대학의 조사연구 작업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Pridham, 1987: 73-74). 서구 세계와 비서구 세계의 정치 문화의 차이도 권력자 접근의 차이를 유발한다. 정치 문화가 폐쇄되어 있는 제3세계에서는 고위 관리나 정치인들이라도 정부 정책이나 당의 노선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서구 사회만큼 자유롭게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고위 권력자들이 신진 권력자들에 비해 개방성이 높고,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데 위협을 덜 느낀다. 정계 사퇴를 각오하는 정치인들은 자유롭게 면접에 응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개방된 정치 문화에서는 고참 정치인과 신참 정치인의 차이는 약화되고 대신에 개인적 독립성이 권력자들의 개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구에서 개발된 연구 전략, 연구 기술, 연구 방법 등을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Chudnowski, 1987: 234-235).

또한 권력자들의 활동 분야도 권력자 접근의 차이를 가져온다. 국방에 관계하는

---

7) Wagstaffe와 Moyser는 1981년 봄과 여름에 실업과 주택 문제 등으로 시민 폭동이 일어난 맨체스터 (Manchester)의 모스 사이드(Moss Side) 지역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을 대항 권력자라고 불렀다.

권력자들은 교육이나 경제나 노사 관계 등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권력자들에 비해 덜 개방적이다(Chudnowski, 1987: 235).

#### ㉡ 권력자 접근의 실제적 방안

권력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자가 공공 모임 등에 출석하여 권력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한다.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와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공 모임에 나가거나 지역사회 쟁점에 관심을 가져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자들이 잘 가는 술집에도 가야 한다. 네트워크를 만들기 전에 면접할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 기간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린다. 대항 권력자들의 경우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대항 권력자의 경우는 주로 개인적인 네트워크(친구의 친구 등)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3-194).

구체적인 면접 대상자가 선정되면 먼저 연구자와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 목적과 대략적인 면접 소요 시간과 그리고 가능한 면접일을 지정해주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반송 봉투와 함께 보낸다. 연구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용에 국한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만 분명히 적시하면 된다(Sinclair, 1987: 64; Galaskiewicz, 1987: 156). 대항 권력자의 경우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을 첨가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4). 권력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체가 대학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다.<sup>8)</sup> 이런 의미에서 대학 문양이 찍힌 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뢰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지가 도착하기를 3일 정도 기다린 후에 사무실로 편지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면접 시간을 정한다. 물론 피면접자가 편리한 시간을 정한다(Galaskiewicz, 1987: 157). 답신이 없는 권력자에게는 2차 서신을 보내고, 조사 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건다. 면접을 거부한 권력자들에게는 다시 전화 접촉을 한다. 물론 면접 대상자인 권력자와 이들의 비서 모두에게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면접율을 높인다. 권력자의 비서는 권력자를 만나볼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조사자들을 만나지 않겠다’와 같은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Sinclair, 1987).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댄다. 이럴 경우 권력자의 보좌진이나

8) 기자들과의 면접에서는 면접 내용이 잘못 보도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솔직한 견해를 피력하지 않을 수 있다(Sinclair, 1987).

스케줄 조정 비서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 쪽이 진지하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9)</sup>

조사 책임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면접 완료까지 최소 접촉 횟수는 3회이고, 거부한 경우에도 최소 2번 접촉하였다. 응답자와 평균 4.2번의 접촉을 하였다. 이렇게 1,744명을 면접하여, 면접율이 55.1%였다 (Hoffmann-Lange, 1987: 33-34).

권력자들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연결되는 특별한 사람을 중재자로 활용한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이나 지역구의 유력자들을 중재자로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 중재자들이 면접 수행에 필수적이지는 않다(Sinclair, 1987: 64). 이들은 어디까가지나 면접 접근이 잘 안될 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된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중재자들을 면접자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중재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권력자 비서와 끈질기게 접촉하여 호의를 얻는다.

권력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연구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면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도록 한다. 또한 연구 주제가 부정적이라도 긍정적인 용어를 구사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Chudnowski의 대만 연구의 주제는 대만 권력자들의 '분열'이었지만 면접자는 '단합'으로 물어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속한 정당의 규모가 크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접근하고, 규모가 적은 정당은 개인적인 접촉만 한다(Pridham, 1987: 79). 대항 권력자들에게는 면접의 공신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들을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역 신문 광고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취지가 제시되어야 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5).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면접에 이르기까지, 즉 편지 발송에서 면접까지 짧은 경우는 6일, 긴 경우는 7개월까지 걸린다.

## ② 권력자에 대한 사전 지식

면접 대상자로 결정된 권력자들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다. 특히 연구자

9) 보좌진들은 그 자체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스케줄 담당 비서는 권력자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보좌관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어떤 보좌진과 접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의 연구 목적을 중립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대항 권력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면접 자료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의 저서, 연설, 뉴스레터, 공문서 등 2차 자료도 충분히 숙지한다. 그리고 권력자의 활동 분야와 면접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전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응답자가 강조하는 부분과 전체를 쉽게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에 맞는 탐구적 질문을 질문하는 도중에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Chudnowski, 1987: 245). 사전 지식이 없으면 면접자가 이 지역사회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어 면접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렇다고 면접자는 사전 지식을 과장해서도 안된다.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면접자는 면접 대상 현실, 정치를 예로 들면 정치 현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Sinclair, 1987: 65).

### ③ 면접 계획

하루에 권력자를 면접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설정한다. 한 사람 당 대체로 평균 면접 시간이 9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 아무리 많아도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상, 즉 하루에 네 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면접과 면접 사이에 적당한 휴식 시간을 둔다(Sinclair, 1987: 63-64).

## (2) 심층면접 과정

### ① 면접율

일반적으로 권력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응답율이 낮다고 하지만 독일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즉 응답율과 권력자 지위의 서열간에는 단순 비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보다는 권력 부문간 차이가 있었다. 정치 분야와 기업 분야 권력자들의 응답율이 다른 분야의 권력자들보다 응답율이 조금 낮았다(Hoffmann-Lange, 1987: 33-34). 무엇보다도 계획한 면접 대상자를 가능한 한 많이 면접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와의 신뢰 관계를 사전, 면접중, 그리고 사후에 진지하게 구축해야 한다.

### ② 면접 시간과 면접 장소

면접 시간은 주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2시간 내외로 한다. 독일 사례에서는 평균 88분이 걸렸다(Hoffmann-Lange, 1987: 34). 독일 사례를 보면 권력자의 면접 시간은 대체로 예정 시간(90분)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평균 시간(88.1분)보다 짧았다. 기업계, 자

발적 조직, 대학 관계자 등은 면접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어서인지 다소 길었다. 그러나 모두 83.5분과 97.2분 사이에 면접이 끝나 집단에 다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Hoffmann-Lange, 1987: 36). 영국의 대항 권력자 면접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다. 물론 응답자들이 면접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시간을 연장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5). 상층 권력자일수록 분위기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연장하기를 원할 때는 권력자와 관련된 배경 자료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면접 장소는 비밀이 유지되는 조용한 장소(사무실이나 개인 주택)로 정한다. 특히 대항 권력자일 때 더욱 이 점에 신경써야 한다. 조용한 장소는 응답자에게 안락한 기분을 갖도록 한다. 면접 장소가 공공적일수록 면접의 자연스런 흐름을 방해한다 (Wagstaffe and Moyser, 1987: 196).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접 장소는 응답자가 정하는 장소를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동석자는 배제시킨다.

### ③ 면접 상황 기록

면접자는 면접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응답자들이 면접에 호의적이었는지, 면접 도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방해 받은 적이 있는지(전화가 온다든지), 그리고 그 것은 몇 번이고 전체적으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물론 총 면접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예정 시간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도 기록한다. 되도록이면 응답자들을 몇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표를 작성한다. 다음 〈표 1〉은 독일의 사례이다.

### ④ 질문 진행

면접자는 질문 항목의 세밀한 부분과 분석시 사용할 범주나 변수를 염두에 두고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고 면접에 임한다(Chudnowski, 1987: 245). 질문지는 응답자의 통찰력과 경험과 지식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작성한다.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한다. 신뢰도 이것으로부터 짹른다. 예를 들어 정치가를 면접할 때, 면접자는 정치가 돌아가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권력자가 알도록 한다. 만약 정치가가 면접자에게 정치 과정을 어린이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하면, 정중하게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응답자에 비견되는 정치 전문가임을 인식시킨다. 심층면접에서 사용하는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은 응답자들이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한다. 완전히 개방적인 문항은 응답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처해

〈표 1〉 면접 기록 상황

	합계	비율
1. 면접 상황 평가		
방해받지 않았다	1,404	80.5
방해는 받았으나 면접에 영향은 거의 없었다	283	16.2
자주 또는 장시간 방해받아 면접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40	2.3
미싱(무응답, 비해당)	17	1.0
2. 응답자 협조 평가		
좋았다	1,459	83.7
어느 정도 좋았다	157	9.0
좋지 않았다	36	2.1
처음에는 좋았으나 차차 나빠졌다	23	1.3
처음에는 나빴으나 차차 좋아졌다	37	2.1
미싱(무응답, 비해당)	32	1.8
3. 방해받은 빈도		
없다	975	55.9
1~3번	663	38.0
3번 이상	84	4.8
미싱(무응답, 비해당)	22	1.3
4. 평균 방해 시간		
없다	975	55.9
1~5분	456	26.1
6~10분	150	8.6
11~20분	93	5.3
20분 이상	37	2.1
미싱(무응답, 비해당)	33	1.9

출처: Hoffmann-Lange(1987: 35)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지침을 주는 것이 좋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8).

권력자들을 면접할 때에는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 의심을 야기시키면 협력 기회가 감소된다. 면접은 응답자의 개인사적 질문(예: 청소년기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등)을 면접의 실마리로 삼는 것이 좋다. 이것으로 면접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고, 응답자의 성격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어 유익하다. 그리고 응답자의 진술 중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자세히 물어봄

으로써 응답자의 경험이나 의견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모두가 응답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 진행은 연구 주제와 다소 무관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신이 나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적대적 면접 상황에서 참고할만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인데 연구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간을 다소 연장해서라도 끝까지 듣는 것이 좋다(Chudnowski, 1987: 245). 그러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해서는 안된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문헌조사로 알 수 있는 것은 묻지 않는다.

대체로 권력자들은 솔직하게 응답한다. 또 지위가 높은 보좌관들이 지위가 낮은 보좌관보다 더 솔직하게 응답한다. 일부 권력자나 보좌관들 중에는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Sinclair, 1987: 65). 논쟁적인 쟁점이나 잠재적으로 당황스런 면접 상황에서 응답을 거절하는 것은 ‘체면’에 관계된다고 생각하여 권력자가 정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수가 있다. 이때 면접자는 이것을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시정을 요구하면 안된다. 판단은 정확하고 빠르게 하지만, 다만 시정 요구를 즉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잠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눈 후 앞서의 응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다시 논의한다(Chudnowski, 1987: 246). 또한 질문 도중에 응답자의 견해를 단호하게 반박하는 것은 안된다. 이 경우는 “선생님의 견해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라는 등으로 부드럽게 말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8). 어떤 사실에 대한 권력자의 응답(또는 해석)에 의문을 표시할 때는 익명의 다른 사람의 의견과 대비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 고위 권력자들에게는 다른 권력자들의 면접에서 얻은 지식과 그동안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쟁점들에 대한 면접자의 이해의 정도를 알리고 응답자로부터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받는 기회로 활용한다. 그러면 응답자는 상당히 솔직하게 응답한다. 권력자들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그들에게 맡겨버리는 ‘투사적 기술(projective technique)’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논쟁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그렇다(Chudnowski, 1987: 246-247).

응답자마다 말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이 많은 응답자는 정작 연구 주제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에 특정 항목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수가 있다(Raab, 1987: 122). 이 때는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확인한다. 대체로 이런 상황은 면접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유의한다. 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성격(예를 들어 비밀을 강조하는 조직이나 개방적인 조직)도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둔다. 면접자 이외의 동석자는 면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물리쳐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6).

### ⑤ 녹음

녹음기가 있을 때 얼마나 덜 솔직할지는 알 수 없다. 녹음기가 응답자의 솔직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녹음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속기를 해도 주요 내용을 놓칠 수 있으며, 녹음은 필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응답자와의 대화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inclair, 1987: 65). 특히 여러 주제를 면접할 때는 녹음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줍어하는 응답자는 녹음보다는 필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필기해 놓은 결과를 나중에 부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7).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녹음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의도적으로 손을 가려 말한다든지 중얼거릴 수 있다. 더구나 이런 경우는 그것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묘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응답자의 요청을 들어주고 배경 자료로서만 이용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195). 아주 민감한 주제를 논할 때에는 면접자가 먼저 녹음기를 꺼 응답자로 하여금 솔직한 대답을 유도한다(Chudnowski, 1987: 244). 그러나 대체로 권력자들은 녹음 자체에 거부감이 없다. 이들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에 익숙해 있고, 오히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정치가들은 녹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녹음기가 있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지는 않는다.

녹음기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더라도 면접자는 녹음기 없이 면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면접을 계획한 대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예: 권력자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면접자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가는 것이 좋다. 연구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접자 중의 한 사람이 피면접자와의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음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녹음 해독이다. 여기저기서 말을 취소했다든지, 자동차 소음이나 사투리 등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해독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면접자와 응답자간에 문화를 공유하지 못할 때 가중된다. 그리고 누가 녹음을 해독할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녹음을 들으면서 즉시 해독하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듈다. 일반 사람에게 해독을 맡길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독이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 대체로 1시간 녹음을 해독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리고 응답자의 말이 빠르거나 심한 사투리를 쓰거나 소음이 많아서 방해받거나 하면 1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200). 녹음 해독은 필요 이상으로 힘이 많이 듈다.

녹음을 해독하면, 면접자가 직접 녹음한 것을 듣고 잘못된 곳을 고친다. 해독한 것은 주제에 맞게 보기 좋은 형태로 정리한다. 이것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응답자가 연구 내용상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시 한번 취지를 설명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한다. 녹음은 응답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응답자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도 응답자와의 래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 응답자로부터 보다 솔직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하면, 이후에는 면접자가 마음대로 사용한다(Raab, 1987: 120-121).

### (3) 심층면접 전반에 걸쳐 고려해야 할 사항

#### ① 비밀 보장

권력자 접근에서부터 면접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면접자와 응답자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면접이란, 응답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이미지, 명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구자라는 국외자의 해석에 노출되는 것이다. 더구나 연구자는 법관이나 심리 상담자처럼 비밀 보장의 서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응답자의 직위와 이름에 대한 익명성만을 보장해 준다. 면접자의 목적은 단지 필요한 정보를 응답자인 권력자로부터 얻어내는 데에 있을 뿐이다. 면접 내용을 완벽하게 비밀 유지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면접하는 학자의 명성과 면접 기술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성실성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학자는 연구 결과와 관련되는 일반 대중, 특히 응답자의 선거 주민이나 윗사람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응답자인 정치가에게는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것도 면접

자에게는 단지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Czudnowski, 1987: 234).

응답자의 말은 인용하되 그들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응답자의 말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모든 배경 자료(몇가지 질문 항목이나 조사 결과를 유추해서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삭제한다. 독일에서는 조사 대상자 개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법적으로 삭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권력자 조사의 경우 의미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지위 특성에 관한 후속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관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독일에서는 응답자들이 문서로 동의하면 개인 자료의 분석이나 축적을 연구자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연구에서는 권력자들의 비밀 보장을 위해 연구 대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권력자들에 관한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응답자들에게서 받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의 조사는 실제 면접에서 전혀 어렵지 않았다(Hoffmann-Lange, 1987: 36).

#### ②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적 평가

심층면접과 관련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즉 연구 결과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칠 것인가, 연구 결과의 활용 또는 남용 가능성은 없는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연구자가 응답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연구의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Wagstaffe and Moyser, 1987: 201).

#### ③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평가

특정 쟁점에 대한 권력자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 자료로서 확인한다. 즉 획득한 자료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자료나 공공 기록 등을 참조할 수도 있고, 다른 응답자와의 교차 검사를 통할 수도 있다. 대항 권력자들은 공개적으로 발표한 진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차 검사를 통해 할 경우가 많다(Wagstaffe and Moyser, 1987: 200). 구술사의 경우는 기왕에 축적해 놓은 구술 자료 공문서 보관서(영국의 경우는 Scotland's Record와 British Oral Archive of Political and Social History)를 활용하여 대조한다(Raab, 1987: 124).

#### ④ 권력자들의 권리 차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권력자들의 권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권력자들의 의견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분석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가중치를 따로 부여해야 한다. 권력자들의 서열을 매겨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 ⑤ 기타

연구 결과를 전파할 때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Galaskiewicz, 1987: 164).

### 2) 청주 지역사회 권력자<sup>10)</sup>의 경우

민경희 · 강희경 · 배영목 · 최영출 등 네 명의 연구자들은 청주 지역사회의 52명의 권력자들<sup>11)</sup>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응한 권력자는 모두 39명(75.0%)이었다. 이들을 상대로 1995년 2월 14일에서 6월 17일까지 반구조화된

10)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인 청주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국가 권력이 일선 지역에 직접 전달되는 광역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또한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 인사들은 학연이나 지역 등의 기제를 통해서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주는 중앙 권력과 지역 권력이 서로 교차하는 독특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연구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11) 선정된 권력자들은 모두 남자였다. 학력별 분포는 청주의 명문고인 청주고 출신이 24명(47.1%)으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청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청주상고 출신은 7명(13.7%)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학교를 포함하여 충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사들은 모두 38명(74.5%)이었다. 청주 지역사회의 권력자들이 관여하는 분야는 정계와 관계가 가장 많았다. 정계를 다시 중앙 정치 부문과 지방 정치 부문으로 나누면 중앙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11명)이 지방 정치 관여자(4명)보다 훨씬 많았다. 청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청주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중앙 무대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과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청주 권력자들이 많이 관여하는 두번째 분야가 행정 분야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인사들이 모두 중앙에서 임명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를 대리하여 청주를 관리하는 경우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중앙 정치와 중앙 정부에서 임명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전체 권력자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반면에 서구와 달리 기업계(금융 부문 포함)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들은 8명(15.4%)에 지나지 않아 정계와 관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것은 청주 지역사회의 경제계가 서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교육(예술 포함)과 언론 분야에 관여하는 인사가 또한 매우 적었다. 그리고 대항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재야 인사는 2명에 지나지 않아 청주 지역사회는 전통적 권력자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지로 구성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청주 지역사회의 핵심 집단의 존재 여부(핵심 권력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조직화된 것인가, 자연발생적인가), 권력 집단의 내부 구조, 권력 집단의 성격(지방 권력자는 중앙 권력에 순응적인가, 대항적인가, 어느 사안에 순응하고 대항하는가), 권리 행사 기제(중앙 권력자와 지방 권력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제와 방법은 무엇인가), 주민과의 관계(주민들은 어느 쟁점에 권리자들을 접촉하는가, 반대로 권리자들은 어느 쟁점과 관련하여 주민을 접촉 또는 동원하는가), 권리 집단의 유지, 권리자들의 의사결정 참여 과정(고속전철 본선역 유치, 가경동 자동차 터미널 이전 사업, 도의원 공천)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 (1) 청주 사례에서의 심층면접 준비

#### ① 권리자 접근

네 명의 연구진 모두 청주에 10~15여년 이상 거주한 것 이외에는 청주와 어떠한 개인적 연고도 없었다. 연구진들은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권리자 접촉을 위한 위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52명의 권리자 중의 일부는 연구와 관계없이 평소에 알고 있었다. 행정학 전공 교수가 특히 관계 출신 지방 권리자들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항 권리자라 할 수 있는 3명의 권리자들은 모두 비교적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일부는 세미나 등으로 일부는 종친회 일로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이것을 다 합쳐도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권리자는 9명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의 20%에도 미달하였다.

청주 지역사회 권리자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 등을 적은 편지를 쓰지는 않았다. 연구진 네 명의 전공 분야와 개인적 연고가 있는 인사를 비슷한 비율로 나누어서 처음부터 전화로 접촉하였다. 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기보다는 직접 전화로 대면하는 것이 면접율을 더 높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청주가 인구 50만명 정도의 중소도시여서 권리자들을 사전에 모르는 경우에도 지역 소재 대학의 교수의 권위는 높은 편이어서 전화 접촉은 대체로 쉽게 이루어졌다. 전화 내용은 연구 목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면접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전화 접촉으로 면접에 동의한 권리자는 총 39명으로 전체 권리자의 75%였다. 이들에게는 번거롭다고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요청한 몇 명의 권리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작성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였다. 설문지를 권리자에 직접 전달

한 경우가 사무실에 맡기고 온 경우보다 더 많았다. 어느 경우(당사자나 비서진)에나 다시 연구 목적과 또 한 번의 심층면접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설문지는 1주일 이내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설문지 안에 연구진의 연락처, 연구 후원기관, 간략한 연구 목적, 면접 진행 방법(권력자의 신원 익명 처리 약속, 설문지의 직접 회수, 심층면접 실시, 그리고 녹음 해독의 수정 약속) 등을 기재하였다.

전화 접촉에서 권력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연구기관과 연구 후원기관이었다. 이 점에서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충북대학교가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연구 후원기관인 학술진흥재단을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잘 몰라서 교육부 산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간이어서 혹시 정당과 연계되거나 않았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앙 행정부처 산하의 연구 후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아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 상당한 안도감을 주었다.

면접을 망설이는 권력자들에게는 선정된 권력자 중에서 그들보다 동급이거나 또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명단을 말해 주거나 또는 이미 면접에 동의한 사람 중에서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의 명단을 불러 줌으로써 면접 동의를 유도하였다.

영향력의 정도가 큰 중앙 권력자들은 전화 접촉이 쉽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설문지 조사와 심층면접한다는 것에 귀찮아하는 반응까지 보였다. 또 활동 장소가 서울이어서 전화 접촉이 이루어 져도 만나기가 어려웠다. 연구진들이 서울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들은 대체로 지역구 행사로 청주에 오는 기회에 만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막상 청주에 왔을 때에는 할 일을 뮤어서 오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받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나 면접에 적극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우선 권력자 연구라는 것에 흥미를 표시하였고, 당사자들이 청주의 권력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에(그것도 중립적인 대학에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정계 인사들은 대부분 누가 뽑혔으며, 누가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계 인사들 중에서도 국회의원과 같은 중앙 권력자들보다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장 후보와 같은 지방 권력자들과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재자를 통해서 설문지를 받거나 면접에 성공한 경우가 몇 건 있었다. 면접에 호의적인 권력자 중에서 그때까지 면접을 거부한 권력자를 잘 알고 있는 경우 면접에 응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설문지나 심층면접에 형식적으로 응하였다. 중재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면접에 응하지 않은 13명의 권력자는 대부분 관계 출신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중앙 정부에서 임명받는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사정 담당자들이 많았다. 도지사도 중앙 정부에서 임명받기는 하지만, 사정 담당자들과 달리 충북 출신이 많았다. 그러나 사정 담당자들은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충북 출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청주나 충북 출신이 아닌 권력자는 청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서인지 전화 접촉 자체를 거절하기까지 하였다. 면접을 거절한 국회의원도 한 명 있었는데 이 의원의 지역구는 청주가 아니었다. 청주를 연고지로 하지 않는 권력자들은 대체로 면접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고령으로 면접할 수 없는 권력자도 한 명 있었다.

### ② 권력자에 대한 사전 지식

권력자들에 관해서 인명 사전과 신문 기사를 출처로 간단한 인적 사항(연령, 학력, 경력, 현직)을 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사전 지식은 갖지 못하였다. 일기나 편지와 같은 사신은 원천적으로 구할 수 없고, 자서전이나 저서와 같은 문서 자료가 있는 권력자도 거의 없다는 것도 사전 지식을 확보할 수 없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사전 지식은 쌓지 못했지만, 조사를 해나가는 동안에 다른 권력자들에 대해서 학연과 성격 등을 물어보아 면접 대상자들에 관한 지식을 확보해 나갔다.

### ③ 면접 계획

한 사람 면접에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두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여 하루에 최대 3명을 넘지 않도록 면접 계획을 세웠다. 심층 면접에는 연구진 네 명 중에서 전화 접촉한 사람을 포함하여 두 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섭외한 사람이 참석함으로써 래포를 쉽게 형성할 수 있고, 질문을 막히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이다. 필기를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녹음을 할 경우에도 질문이 중간에 끊기면 면접이 어색해지기 때문이다.

## (2) 심층면접 과정

### ① 면접 시간과 장소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전화 접촉에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면접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말을 모두 하였다. 정계와 기업계 출신 권력자들이 면접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전직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은 면접 시간 연장과 식사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원 출마 예정인 한 기업체 사장은 예정 시간을 넘겨 서울로 갈 시간이 되자 다음 번 약속을 스스로 청하였다. 공식적인 면접 시간과 식사 시간까지 포함하여 최대로 길게 걸린 사례는 7시간 정도였다. 이 권력자는 연구진 중의 한 사람인 어느 교수의 집을 방문해서 집도 구경할 겸 더 얘기하고 요구하였다. 이 때에 공식적인 면접 내용 이외의 청주의 일반적 권리자 상황을 많이 들었다.

면접 장소는 응답자들이 지정하는 장소를 이용하였다. 사무실이 있는 권력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사무실에서 면접하였고, 사무실이 없는 권력자(예: 전직 관료 등)는 호텔이나 커피숍에서 면접하였다.

### ② 면접 상황 기록

면접 상황에 대한 기록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면접과 관련되어 기록한 것은 면접 장소와 날짜와 시간이었다. 나머지 면접 진행시 방해받은 정도라든지 우호적인 면접이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면접 시간과 장소도 기록만 하였지 실제로 평균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면접 시간과 그 외의 저녁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였다.

### ③ 질문 진행

면접은 면접에 응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시작하여 5분 정도 세상 돌아가는 가벼운 이야기 등을 하여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녹음에 응해 줄 것인지의 여부와 면접 내용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통보하고 공식적인 면접에 들어갔다. 질문 항목에 논쟁적인 쟁점이 없어서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한 사람이 주질문자로 묻고, 질문자를 포함하여 모든 면접자들이 각자 기록하였다. 사전에 정한 몇 가지 쟁점을 주면접자가 묻고 보충 질문은 나머지 면접자가 그때그때 하였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응답자에

게 무엇을 물은 것인지를 면접자로 참석하는 사람들끼리 5-10분 정도 간단히 상의하였다. 질문은 이미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권력자가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부실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 내용을 오해한 것 등을 확인하고, 면접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설문지를 근거로 질문하였다. 예를 들면, '1990년에서 1992년까지 청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하는 10명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분부터 순위대로 적어 달라'는 문항에 응답자가 기재한 것을 바탕으로 10명을 거론한 순위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한 부분은 연구 기간이 1990년에서 1992년까지인데 면접 시점(1995년)을 중심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문항, 즉 청주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고속전철 유치 사업, 자동차 여객 터미널 이전 사업, 청주시 도의원 후보자 결정 등에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활동하였으며, 누구와 같이 참여하였는지를 묻고, 그렇게 참여하게 된 배경을 질문하였다.

면접에 호의적인 응답자들은 명쾌하게 질문에 응하였다. 특히 관여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사업(예: 고속전철 유치 사업)인 경우는 신이 나서 설명하였다. 가급적 응답자들의 기분을 맞춰 주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부분을 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특히 정계 출신 인사들(특히 국회의원 선거나 도지사,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권력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명백히 틀린 사실을 말하는 경우라도 응답자 본인 면전에서 반박하지는 않았다. 다른 권력자에게 검토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작 연구에 중요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비켜가는 일이 많았다.

#### ④ 녹음

응답자들은 대부분 녹음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 교육계 인사도 선선히 응낙하였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관계 인사는 거의 응하지 않았다. 녹음에 동의한 관계 인사라도 녹음을 상당히 의식하는 눈치였지만, 의도적으로 왜곡된 응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정치인들은 거리낌없이 녹음을 허용하였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전혀 녹음을 의식하지 않았다. 녹음하는 것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민감한 문제(예: 다른 권력자와 관련된 사항)는 녹음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적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제 자랑을 많이 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녹음 상태는 커피숍 같은 곳에서 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녹음의

문제는 역시 해독이었다.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독 상태가 정확하지 않았다. 학생을 녹음 해독자로 고용했는데, 청주 지역사회의 현안도 잘 모르고, 청주 상류 층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여서 녹음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 해독이 정확하지 않았다. 특히 권력자들의 이름과 출신 지역과 같은 지명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다. 녹음 해독을 전문으로 하거나, 청주 지역사회 내부에 밝은 사람이 해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았다. 녹음 해독에 비용도 많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녹음과 녹음 해독은 노력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았다. 녹음을 보완하기 위해 면접자들이 필기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다. 물론 1996년 발표 논문은 심층면접 자료를 동원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녹음 해독 자료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 녹음의 효과를 따질 계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녹음 해독 자료를 참고한 적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못되었다. 특히 비용에 비해서는 더 그렇다.

녹음 해독한 내용을 주제에 맞게 정리하거나 자료 그 자체를 응답자들에게 다시 제시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에게 녹음 해독 자료를 보여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녹음 내용이 연구자들이 판단하기에 매우 민감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독 자료를 다시 응답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도 부분적인 이유이다.

### (3) 심층면접 전반에 고려할 사항

#### ① 비밀 보장

응답자들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했다. 가명을 사용하는 방법과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논문 작성에 더 편리한 후자로 결정하였다. 권력자들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청주의 권력자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이 논문 내용을 여러가지로 짜 맞추면 그 중 몇 사람의 신원은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청주고등학교 졸업 고위 관계 출신자, 또는 음성고등학교 졸업 경제계 출신자 등으로 짜맞추기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거의 정확하게 지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권력자를 알아내겠다고 달려들면, 해커처럼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번호로 처리한 권력자들에 흥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 ②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적 평가

심층면접과 관련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 결과가 청주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다거나 연구 결과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 결과가 아니라 권력자 선정과 순위를 놓고 관심과 흥미를 표시하는 지역 인사는 많았다. 연구 결과가 짧막하게 중앙 일간지와 지역에서 발간되는 월간 잡지에 소개되자 누가 권력자로 선정되었는지, 그들의 행태는 어떤지 등에 관해서 알고 싶다는 연락은 있었다. 그러나 막상 연구 결과를 보고서는 실망을 표시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학술적인 연구 논문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③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평가

특정 쟁점에 대한 권력자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려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진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들의 청주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중에서 터미널 이전과 도의원 공천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관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사실 판단할 필요가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것은 청주 지역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층면접 주제로서는 잘못 선정한 셈이다. 그러나 고속전철 유치 사업은 중심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엇갈린 응답이 제법 있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의 응답을 상호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만족할만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속전철 유치 사업과 관련한 백서를 권력자들 진술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사용하였다.

### ④ 권력자들의 권력 차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을 분석에서 활용하지는 않았다. 권력자의 서열을 평가해보는 차원에 머물렀다.<sup>12)</sup>

---

12) 18명의 판정자들로 하여금 권력자를 선정하게 하고, 다시 선정된 권력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서열화할 것을 요구하여 권력자들의 순위를 정하였다.

## 5. 맺음말: 보다 나은 심층면접을 위하여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려면 매우 체계적인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심층면접을 하기 위한 틀을 미리 만들고 문항도 사전에 작성하여 임했지만, 심층면접 도중에 미리 계획한 방향과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 자체가 심층면접의 특성 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례의 독특성과 함께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항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매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질문 문항에서 그렇다. 자칫 잘못하면 면접자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응답자에 이끌려 허둥지둥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 응답자들이 바쁜 권력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앞의 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연구 주제를 잘 정해야 한다. 청주 연구에서도 자동차 터미널 이전과 도의원 공천과 같은 주제를 청주 지역사회의 권력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주제로 정했는데 이것에 관여한 응답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었다. 미리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 하나는 청주시의 행정 행위와 관련된 주제를 정했을 때에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조례에 의해 자료를 입수하던가, 아니면 폴스비(Polsby)의 경우처럼 내부 자료를 얻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연구진으로 참가시키던가 하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무적인 문제로서 단독 연구보다는 공동 연구가 좋다. 이것도 한 분야 전공자 간의 공동 연구보다는 여러 학문 분야의 공동 연구진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공동 연구는 권력자 연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일반적 장점 이외에 권력자 자체가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쉽게 접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술적 문제로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청주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녹음 해독한 것을 다시 제시하여 검토받을 것이라고 전화 접촉에서나 실제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의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응답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차후 조사에서 래포를 형성하지 못할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또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는 녹음 해독과 관련된 것이다. 녹음 해독에 필요 이상으로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심층면접에서는 녹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작 녹음해 놓은 것을 논문에서 인용하는 것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왕 녹음을 해독한다면 학부생 수준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사람이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해독자로 위촉하여 정확하게 해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사정으로서는 시기상 조이겠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녹음 해독을 일정 기관에서 보관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녹음 해독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나아가 보다 정확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 · 이온죽(1986), 『사회조사 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 민경희 · 강희경 · 배영목 · 최영출(1996), “청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187-226.
- Arendt, Hannah(1986), “Communicative Power,” In *Power*, edited by S. Lukes. U.K.: Basil Blackwell Ltd.: 59-74.
- Bachrach, Peter and Morton S. Baratz(1962),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 947-952.
- Dahl, Robert A.(1957), “The Concept of Power,” *Behavioral Science*(July): 201-215.  
\_\_\_\_\_ (1961), *Who Gover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zudnowski, Moshe M.(1987), “Interviewing Political Elites in Taiwan,” in Moyser, George. and Margaret Wagstaffe.
- Freeman, Linton C., Thomas J. Fararo, Warner Bloomberg, Jr. and Morris H. Sunshino(1974), “Locating Leaders in Local Communities: A Comparison of Some Alternative Approaches”, In *The Search for Community Power*, edited by W.D. Hawley and F.M. Wir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4: 239-249.
- Hunter, Floyd(1953), *Community Power Structure: A Study of Decision Maker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ukes, Steven(1974), *Power: A Radical View*. London: Macmillan.  
\_\_\_\_\_ (ed.)(1986), *Power*. Oxford, U.K.: Basil Blackwell Ltd.
- Medhurst, Kenneth and George Moyser(1987), “Studying a Religious Elite: the Case of the Anglican Episcopate,” in Moyser, George. and Margaret Wagstaffe.
- Mills, C. Wright(1956),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yser, George and Margaret Wagstaffe(1987), *Research Methods for Elite Studies*. London: Allen and Unwin.
- Parsons, Talcott(1986), “Power and the Social System,” In *Power*, edited by S. Lukes. U.K.: Basil Blackwell Ltd.: 94-143.
- Polsby, Nelson W.(1980), *Community Power and Political Theor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Poulantzas, Nicos(1986), “Class Power,” In *Power*, edited by S. Lukes. U.K.: Basil Blackwell Ltd.: 144-155.
- Pridham, Geoffrey(1987), “Interviewing Party-Political Elites in Italy,” in Moyser, George and Margaret Wagstaffe.

- Raab, Charles(1987), "Oral History as an Instrument of Research into Scottish Educational Policy-Making," in Moyser, George and Margaret Wagstaffe.
- Sinclair, Barbara(1987), "Studying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Moyser, George and Margaret Wagstaffe.
- Ursula Hoffmann-Lange(1987), "Surveying National Elit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Moyser, George and Margaret Wagstaffe.
- Walton, John(1971), "The Vertical Axis of Community Organization and the Structure of Power," In *Community Politics: A Behavioral Approach*, edited by Charles M. Bonjean, Terry N. Clark and Robert L. Lineberry. N.Y.: The Free Press: 189-197.
- Wolfinger, Raymond E.(1960), "Reputation and Reality in the Study of 'Community Pow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636-644.
- \_\_\_\_\_, (1971), "Nondecisions and the Study of Local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Dec.): 1063-1104.
- Wagstaffe, Mararet and George Moyser(1987), "The Threatened Elite: Studying Leaders in an Urban Community," in Moyser, George and Margaret Wagstaffe.

abstract

---

A Practice of In-depth Interview Method:  
With Reference to a Study of Power Elites in Chongju Community

Kang, Hee-Kyung\*

Although both quantitative(sample survey) and qualitative(interview) methods are available most studies of power elites utilize unstructured interview method as the number of power elites are very few. I would like to mention two problems faced by researchers who try to administer in-depth interviews with power elites. First, it is not easy to make appointments with power elites. Basically the study can not be carried out without meeting and interviewing them. Secondly, prior to the interview researchers must perform a thorough preparatory study regarding the interviewee(the power elite) including secondary materials such as his/her writings and speeches, relevant public documents as well as interview schedule for the study. The researchers must record in detail interview situations such as general atmosphere and the attitudes of the interviewee about specific topics.

Four researchers(Min Kyonghee, Kang Hee-Kyung, Bae Youngmok, and Choi Youngchul Choi) carried out un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39 power elites out of total 52 power elites in Chongju Community from Feb. 14th through July 17th of 1995. The researchers wanted to find out the following: the existence of core power elites in Chongju, internal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lite group, mechanisms through which power is wielded, decision-making processes among power elites in relation to different subjects. The fact that all four researchers were from a university in the region

\*Professor of Soci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Social Stratification. Major Publicatio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Spatial Division of Class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ew Middle Class in Korean and Taiwan",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 20, No. 1, 101-119. E-mail: kkhee255@trut.chungbuk.ac.kr.

seemed to have helped with the first problem mentioned above: the researchers had easy access to power elites.

A systematic preparatory planning especially with regard to interview questions is necessary in order to better utilize in-depth interview method. In addition, researchers must be careful in selecting the subject of study. For example, in the study mentioned above we selected the relocation of bus terminal as the subject of our study as it had a communitywide importance. However, not many of the interviewed power elites had anything to do with the issue and the study was not successful in grasp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volved in the relocation of bus terminal. Lastly, a technical note should be mentioned: as a researcher one must not make a promise that cannot be kept. In our study researchers promised the power elites that they should be given a chance to review the interview record. But for various reasons the researchers were not able to keep the promise.